

두보의 시에 나타난 ‘長安’ 그리고 場所愛(토포필리아)

辛恩卿*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제3권역 시에서의 ‘장안’ |
| II. 두보 삶의 세 圈域 | V. ‘장안’에 대한 場所愛의 형성과 정착 |
| III. 長安圈域 시에서의 ‘장안’ | VI. 나가는 말 |

• 국문초록

‘장소애’란 지리상의 어느 한 지점으로서의 장소에 주관적 정서가 가미된 개념인데 두보에게 있어 그 대상이 되는 곳은 ‘낙양’과 ‘장안’이다. 이 글은 이 중 ‘장안’에 중점을 두고 ‘장소’ 및 ‘장소애’라는 관점에서 두보의 시를 살핀 것이다. 이를 위해 두보의 삶과 창작의 무대가 된 곳을 낙양권역, 장안권역, 제3권역으로 구분하였는데(Ⅱ장) 이 중 장안과 무관한 낙양권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권역에서 지어진 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언어학의 ‘기능적 텍스트 구성법’의 이론을 차용하여 권역별 시에 장안이 어떻게 언어화되었는가를 살핀 다음(Ⅲ~Ⅳ장) 이에 근거하여 장안에 대한 장소애가 형성·정착되는 양상을 살폈다(Ⅴ장). 장안권역 전기 시에서의 장안은 求職 활동의 거점으로, 후기 시에서는 관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그려진다. 장안권역 시에서는 장안이 지닌 ‘公的’인 성격이 부각되는 한편 제3권역 시에서는 장안이 ‘私的 空間化’되어 ‘고향’의 의미로 자리잡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두보의 삶과 시에서 ‘장안’에 대한 장소애가 ‘형성’된 것은 제3권역 전기이고 확고하게 ‘정착’된 것은 제3권역 후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주제어 : 두보, 장안, 장소애, 장안권역, 제3권역, 주제어, 설명어

* 우석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장소’¹⁾를 키워드로 하여 두보의 삶과 문학을 개괄할 때 큰 의미와 비중을 지니면서 부각되는 곳은 단연 ‘洛陽’과 ‘長安’이다. 물론 그의 떠돌이삶 가운데 그나마 평온의 시기를 보냈던 成都나 夔州의 경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는 하지만 장소에 관한 언급이 문면에 표출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할 때 ‘洛陽’과 ‘長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빈번한 양상을 보인다. 두보는 河南府 鞏縣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낙양으로 옮겨와 삼십 대 중반까지 이 곳에서 살았으므로 스스로 낙양을 고향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관직을 얻기 위해 장안으로 진출하여 10년 조금 넘게 이 곳을 삶의 터전으로 하게 되는데 두보의 삶에서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오랜 기간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장안은 그에게 제2의 고향의 의미를 지닌다. 두보는 두 도시를 ‘兩京’으로 칭하면서 수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과 표현으로 이 두 도시를 언급하곤 하였다. 이로 볼 때 이 두 곳은 두보가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의미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는 두 곳 중 ‘장안’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어떤 특정 장소에 대한 사랑을 ‘토포필리아’(topophilia)라는 말로 칭하는데 이것은 이푸 투안에 의해 고안된 개념²⁾으로 장소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topoi’와 사랑을 뜻하는 ‘philia’가 결합한 말이다. 보통 ‘場所愛’로 번역이 되는 이 말을 어떤 지리적 지점으로서의 장소에 정서적 깊이가 더해진 개념으로 이해할 때 낙양과 장안을 두보의 장소애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의 문학에 접근하는 관점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1) ‘장소’(place)와 ‘공간’(space)은 의미와 그 포괄범위가 다른 개념이지만 이 글의 초점이 되는 ‘장안’의 경우 장소나 공간 모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특별히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될 것이다. 다만 ‘topophilia’의 번역어 ‘장소애’와 호응을 이루기 위해 공간보다는 장소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이푸 투안은 저서 『Topophilia』(1974)(『토포필리아: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이옥진 역, 에코리브르, 2011)에서 이 용어를 창안하였고 그 후 『Space and Place』(1977)(『공간과 장소』, 정영철 역, 태림문화사, 1995)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공간과 장소』 서문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태도와 가치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기 위해 ‘토포필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책을 썼음을 밝히고 있다.

어떤 장소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 장소와 깊은 유대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욕구³⁾로서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세상을 내다보는 안전지대를 갖는 것, 사물의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파악하는 것, 특정한 어딘가에 유의미한 정신적·심리적 애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⁴⁾ 두보처럼 한 곳에 뿌리내리며 살기를 열망했지만 의지와는 달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경우 특정 장소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은 각별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장소’ 및 ‘장소애’의 관점에서 두보의 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두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본다.

장소애의 관점에서 두보의 시를 논할 때 사실 ‘장안’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범위와 규모가 너무 넓고 커서 이 곳을 하나의 장소로서 포착하여 언어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장안은 장소보다는 더 큰 범위인 ‘영역’의 성격을 지닌다. 보통 어떤 장소를 애착의 대상으로서 상기할 때는 전체가 아닌, 한 개인에게 의미가 있거나 개인적 경험을 상기시키는 특정 위치나 환경 예컨대 건물이나 이정표, 길, 명소, 주변의 자연경관 등을 떠올리게 되며⁵⁾ 이 하나하나가 구체적 장소가 된다. 두보의 시에서 ‘장안’은 관련이 있는 건물이나 사물, 자연경관, 명소 등으로 지시되곤 하며 이런 구체적인 장소들에 관한 기억과 경험의 총체가 장안에 대한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두보 시의 분류 방법은 다양하다. 생애를 중심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작품의 변화 양상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기준과는 관점을 달리하여 그의 삶과 문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데 이 글은 다음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계획되었다. 첫째는 ‘장안’이라는 곳이 그의 시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다시 말해 장안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언어화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둘째는 장안에 대한 장소애가 형성되는 양상을 살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Ⅱ장에서는 두보의 삶의 전환점 및 주된 활동 무대가 되는 장소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에 대한 검토를 하고, Ⅲ~Ⅳ장에서는 각 권역별로 두보가 장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였는가를 살피며, Ⅴ장에서는 앞의 내용들을 토대로 장안에 대한 두보의 인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3) 에드워드 펠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94면.

4) 앞의 책, 95면.

5) 앞의 책, 92면.

장소애가 형성·정착되어갔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 글에서 ‘권역’은 두보의 생활의 거점을 가리키는 동시에 창작이 이루어지는 곳을 아울러 칭하는 개념이다. 특정 범위 안의 지역이라는 뜻의 ‘圈域’은 ‘영역’과 흡사한 개념으로 여기서는 해당 권역의 중심 도시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를 포괄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장안’과 같이 단수 개념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장안권역’처럼 복수 개념으로 지칭하기도 할 것이다.

Ⅱ. 두보 삶의 세 圈域

생활의 거점이자 창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두보의 삶과 문학을 조명해 볼 때 낙양과 장안, 그리고 기타 제3지역 이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두보는 河南府 鞏縣 출신이지만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같은 하남부에 속해 있는 낙양의 고모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는 종종 낙양을 고향으로 칭하곤 했다. 낙양은 746년 장안으로 진출하기 전까지 두보의 초반의 삶의 거점이 된 곳이었으므로 이를 ‘洛陽圈域’으로 분류할 수 있다.⁶⁾

746년 두보는 35세의 나이에 出仕를 위해 장안으로 진출하게 된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살림을 장안으로 옮겨 고위 관리에게 벼슬을 구하는 干謁詩를 써서 보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벼슬을 구걸하는 생활이 길어지면서 가족들은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고 그 여파로 어린 자식까지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두보는 구직활동 10년 만에 755년 10월 무기 출납을 관리하는 右衛率府 兵曹參軍이라는 미관말직에 임명되지만 곧바로 11월에 安祿山의 난이 일어나 피난·포로·압송·탈주 등으로 관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757년에 左拾遺에 임명된다. 그 후 758년 6월에 華州 司功參軍으로 좌천되고 759년 7월, 관직을 버리고 새 터전을 찾아 秦州를 향해 떠나게 된다. 화주는 장안 인근 지역의 고을로 오늘날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두보가 벼슬을 위해 장안에 입성하여 화주를 떠나기까지를 ‘長安圈域’의 시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두보는 이때 장안을 떠난 뒤로 평생 다시 돌아가

6) 두보의 생애는 전영란, 『杜甫, 忍苦의 詩史』(태학사, 2000)를 참고했다.

지 못했다.

759년 7월 두보는 관직을 버리고 정치없는 나그네 생활에 발을 내딛게 되는데 낙양과 장안권역 시기의 경우 적어도 10년 이상 거주하며 나름 뿌리를 내린 삶이었던 것에 비해 759년 이후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는 이리저리 떠돌며 流離漂泊하는 삶의 양상을 보인다. 장안을 떠나 이곳저곳 옮겨다니던 시기를 ‘제3권역’의 시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장안이 시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살핌에 있어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장소가 직접적인 명칭 대신 杜曲·曲江·終南山·渭水·芙蓉苑·五陵·中原·關中·西京·秦·皇州 등과 같이 다양한 말로 대체되는 양상을 보이는 예가 많다는 점이다. 이 지칭어들은 핵심어인 장안에서 파생한 단어라 할 수 있고 핵심어와 파생어는 인접성에 기초한 환유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 글에서는 ‘장안’에 대한 두보의 인식과 표현을 살필 때 직접적인 명칭 외에도 이 곳과 인접관계에 있는 다른 사물이나 현상으로 대체하여 지시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많은 지면이 할애될 Ⅲ장과 Ⅳ장, 즉 두보가 권역별로 장안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를 어떻게 언어화하였는가를 살피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은 기능적 텍스트 구성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FSP)에서 제시된 ‘주제어’(Theme)와 ‘설명어’(Rheme)—이후 TR로 약칭—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다. 기능적 텍스트 구성법이란 문장과 문장이 결합하여 하나의 텍스트가 생산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언어학적 이론틀이다. 여기서 ‘주제어’란 발화의 기반이 되는 것, 발화자가 그 문장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며 ‘설명어’란 발화자가 이 주제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풀이하는 내용을 가리킨다.⁷⁾ 설명어는 뒤에 이어지는 발화맥락에서 다시 주제어가 되고 여기에 설명어(2)가 주어지게 된다.⁸⁾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기능적 텍스트 구성법의 틀에서 주제어/설명어 개념을 취하여 장안을 ‘주제어’로, 이 도시에 대해 새롭게 부가된 내용을 ‘설명어’로 보면서

7) 이는 舊情報(Given Information)/新情報(New Information)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구정보와 주제어, 신정보와 설명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일치하는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8) FSP이론은 여러 언어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어 왔지만 이 글의 논점은 주로 František Daneš,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ed. by František Daneš(The Hague · Paris: Mouton, 1974)에 의거하였다.

두보가 발화의 기반이 되는 이 곳을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언급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장안을 대체 혹은 지시하는 단어는 제1차 설명어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글은 두보의 시를 ‘장안’이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춰 살펴 보려는 것이므로 시 전체의 주제나 기법보다는 이 곳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관심을 둔다.

Ⅲ. 長安圈域 시에서의 ‘장안’

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보는 746년 出仕를 위해 장안으로 진출하여 758년 6월 華州로 좌천되었다가 759년 7월 장안권을 떠나 진주로 향하게 된다. 약 14년간의 이 기간을 755년의 출사 전과 후로 나누어 각각 ‘장안권역 前期’와 ‘後期’라 칭하기로 한다. 장안권역의 시를 이렇게 兩分하는 것은 관직 진출 여부가 오늘날 취업준비생과 취업자만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고 그 차이는 고스란히 장안에 대한 언어 표현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장안권역 전기’ 시의 경우

이 시기 장안은 求職 활동의 거점이었던 만큼 벼슬 청탁, 干謁詩,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불우한 처지와 관계된 공간으로 그려진다.

(1) 杜曲幸有桑麻田	두곡엔 다행히도 뽕과 삼 심은 밭 있으니
故將移住南山邊	장차 남산 부근으로 옮겨 살리니

(<曲江三章 章五句> · 3장, 제2권)⁹⁾

9) 앞으로 인용할 두보 시 원문은 淸 仇兆鰲 撰, 『杜詩詳註』(北京: 中華書局, 1979)에 의거하고 이후는 권수만을 나타내기로 한다. 번역은 장안권역 전기 시의 경우 『두보 초기시 역해』(이영주 외 4인 역해, 솔, 1999), 장안권역 후기 이후의 시는 김만원 외 6인이 역해한 『두보 진주동곡시기시 역해』(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두보 성도시기시 역해』(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두보 재주낭주시기시 역해』(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두보 2차성도시기시 역해』(서울대학교출판부, 2016), 강민호 외 7인이 역해한 『두보 기주시기시역해』 1·2(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2019)를 참고하고 인용작품이 올시일 경우는 우선적으로 『(완역) 杜甫律詩』(이영주 외 2인 역해, 明文堂, 2005)에

이 시는 두보가 752년 현종에게 부를 헌상하였으나 별다른 결과가 없게 되자 낙심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다. 실의에 찬 두보는 벼슬을 혹 못하게 되면 자신의 발이 있는 곳으로 옮겨 가서 살겠노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뜻을 표명하고 있다. 全 3장 중 장안을 지시하는 말이 사용된 것은 1장과 3장인데 위에 인용한 3장의 ‘두곡’은 장안 남쪽에 있는 지명, ‘남산’은 장안 남쪽에 있는 終南山을 가리키며 이 두 곳은 각각 ‘장안’이라는 주제어에 대해 제1, 제2 설명어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설명어들은 다시 주제어2로 작용하여 각각 ‘뽕밭 삼밭이 있는 곳’ ‘장차 옮겨가 살고자 하는 곳’이라는 설명어로 연결된다. 그럼으로써 ‘장안’은 결국 ‘뽕밭 삼밭이 있는 두곡과 종남산에서 가까운 곳’으로 언어화된다. 이 양상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장안 { 두곡(제1설명어1=주제어2) - 뽕과 삼밭이 있는 곳(설명어2)
(주제어1) { 남산(제2설명어1=주제어2) - 장차 옮겨가 살고자 하는 곳(설명어2)

(2) 赤縣官曹擁才傑	적현의 관청은 인재들을 가졌는데
軟裘快馬當冰雪	부드러운 갓옷과 날쌔 말로 빙설을 맞는다
長安苦寒誰獨悲	장안의 지독한 추위에 뉘 홀로 슬퍼하나
杜陵野老骨欲折	두릉 땅 시골 노인은 뼈가 부러질 듯하다
南山豆苗早荒穢	남산의 콩씨는 일찍부터 황폐해졌고
青門瓜地新凍裂	청문의 참외밭은 새로 얼어 터졌다
鄉里兒童項領成	마을 아이들은 목을 뻗뻗이 세우고
朝廷故舊禮數絕	조정의 옛 벗들도 예의를 끊었다

(<投簡咸華兩縣諸子>, 제2권)

위는 총14구로 된 <投簡咸華兩縣諸子> 중 제1~8구를 발췌한 것이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이 시는 두보가 장안에 있을 때 장안 부근의 咸陽縣과 華原縣에 있는 친구들에게 써서 보낸 것이다. 751년 장안에서의 척박한 삶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는 이 시의 인용 부분에서 장안에 대한 지시어로 작용하는 것은 ‘赤縣’ ‘長安’ ‘杜陵’ ‘南山’

의거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杜甫全詩集』全四冊(鈴木虎雄 譯註, 日本圖書センター, 1978)의 번역과 주해를 참고하였다. 번역에 있어 필자와 의견이 다른 부분은 필자의 번역으로 바꾸었다. 이하 이 번역서들의 서지사항은 생략한다.

‘靑門’ ‘朝廷’ 등이다. ‘赤縣’은 唐代 縣의 등급 중 하나로 수도에서 다스리는 읍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장안을 가리키며, ‘杜陵’은 장안 근방의 지명이고 ‘靑門’은 장안성의 동남쪽 성문 이름¹⁰⁾이다. 그리고 ‘朝廷’은 임금이 정사를 펴는 곳이고 임금은 수도인 장안에 있으므로 ‘조정→임금→장안’으로 의미의 이동이 일어나며 이 이동은 인접성에 기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두릉’이라는 장소는 ‘시골노인’ 즉 두보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인재들’이 모여 있는 ‘적현’이라는 장소와 대를 이룬다. 장안이라는 동일 권역을 설정하여 같은 공간에서 ‘영달한 사람들’과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불우한 자신’을 대비시킴으로써 현재의 실의와 우울에 찬 심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5구와 6구의 ‘남산’과 ‘청문’은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위한 장소로 설정되어 있는데 남산은 ‘심어놓은 콩의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청문은 ‘참외밭이 다 얼어터진 곳’으로 그려져 있다. 제7구의 ‘마을’과 제8구의 ‘조정’ 또한 대를 이루면서 불우한 자신을 낮추어 보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장소를 나타낸다.

장안 (주제어1)	— 두곡(제1설명어1=주제어2) — 뽕과 삼밭이 있는 곳(설명어2)
	— 남산(제2설명어1=주제어2) — 장차 옮겨가 살고자 하는 곳(설명어2)
	— 적현(제1설명어1=주제어2) — 영달한 관청 인재들이 있는 곳(설명어2)
	— 장안(제2설명어1=주제어2) — 추위에 홀로 떨고 있는 곳(설명어2)
	— 두릉(제3설명어1=주제어2) — 추위에 고생하는 시골 노인이 있는 곳(설명어2)
	— 남산(제4설명어1=주제어2) — 일찍부터 콩싹이 황폐해진 곳(설명어2)
	— 청문(제5설명어1=주제어2) — 참외밭이 다 얼어터진 곳(설명어2)
	— 조정(제6설명어1=주제어2) — 예의를 잃은 옛벗들이 있는 곳(설명어2)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현·장안·두릉·남산·청문·조정은 ‘장안’에 대한 지시어인 동시에 TR의 관점에서 볼 때 장안을 주제어로 하는 설명어들로 기능한다. 결국 이 시에서 장안이라는 장소는 ‘~한 적현, ~한 장안, ~한 두릉, ~한 남산, ~한 청문, ~한 조정이 위치한 곳’으로 그려진다. 이 시를 통해 두보는 정치적 불우함과 경제적 빈한함을 지인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을 통해 벼슬을 향한 욕망을 간접적으로

10) 본래 이름은 霸城門인데 문이 푸른색인 데서 청문으로 칭해졌다.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장안은 두보가 이같은 욕망 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場으로서 언어화된다.

- | | |
|-----------|--------------------------|
| (3) 騎驢三十載 | 나귀 탄 지 여러 해 |
| 旅食京華春 | 봄날 장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 | |
| 今欲東入海 | 이제 동으로 바다에 들고자 하여 |
| 卽將西去秦 | 곧장 서쪽에서 진나라를 떠날까 합니다 |
| 尙憐終南山 | 아직도 종남산을 사랑하고 |
| 回首清渭濱 | 맑은 위수의 물가를 머리 돌려 바라봅니다 |
| |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 제1권) |

747년 두보 나이 36세 때 현종의 조서에 의해 특별 과거시험이 행해져 두보도 참여하였는데 이임보의 농간으로 참가자 모두 불합격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 두보는 이 일에 대해 상서좌승 韋濟에게 진정하는 내용의 시 <奉贈韋左丞丈二十二韻>를 보냈다. 위는 총 44구 중 장안에 관한 언급이 있는 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두보는 이 시 외에도 <奉寄河南韋尹丈人>(제1권), <贈韋左丞濟>(제1권) 등 벼슬을 청하는 干謁詩 성격의 시를 그에게 보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 바 있다.

위 시구에서 ‘화려한 도읍’(“京華”), “秦” “終南山” ‘맑은 위수’(“清渭”)는 모두 장안을 직·간접으로 지시하는 어구이다. 두보는 여러 시작품에서 ‘秦나라 땅은 예로부터 제왕의 영토’라 하면서 장안을 ‘秦’으로 나타내고 있고¹¹⁾ ‘渭水’는 관중 지방을 관통하는 강으로서 이 강 바로 남쪽에 장안이 세워졌기 때문에 두보 시에서 이 말 역시 장안을 나타내는 데 자주 사용된다. 장안에 대한 이 지시어들은 TR의 관점에서 볼 때 장안이라는 1차 주제어에 대한 1차 설명어로 작용한다. 그리고 각각의 설명어들이 다시 2차 주제어로 작용하여 ‘경화’에 대해서는 ‘여러해 동안 나그네살이를 하는 곳’, ‘秦’에 대해서는 ‘바다에 들고자 하여 지금 떠나려고 하는 곳’, ‘종남산’과 ‘위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랑하는 곳’ ‘떠나는 것이 아쉬워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곳’이라는 2차 설명어가 제시된다. 이 시에서도 장안은 벼슬자리를 놓고 고군분투하는 것에 지쳐 떠나고자 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곳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11) “秦中自古帝王州”(〈추홍8수〉·6)

그 아쉬움은 장안에 대한 애착보다는 벼슬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장안권역 전기는 벼슬을 갈망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만큼 이 시기의 시 중에는 (2)와 (3)처럼 권력자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수신인으로 하여 글을 보내는 형식의 시가 많다. 그리고 관직의 수행처로서의 장안 역시 두보의 갈망이 응집된 장소로 그려지는 경향이 강하다. 아래의 시구에는 관직에의 진출을 향한 갈망과 좌절이 잘 나타나 있다.

- | | |
|--------------------|--|
| (4) 寸步曲江頭
難爲一相就 | 한 발자국만 가면 곡강 언저리일 터인데
한 번 나아가기가 어렵구나 (<九日寄岑參>, 제3권) |
|--------------------|--|

여기서 장안(‘주제어1’)을 대체하는 장소는 ‘곡강’(‘설명어1=주제어2’)으로서 ‘지척의 거리지만 나아가기 어려운 곳’(‘설명어2’)으로 그려지고 있다. 장안은 관직생활이 행해지는 場으로서 ‘곡강→장안→관직’으로 의미가 전이되며 이같은 의미의 이동에는 인접성에 기반한 환유의 원리가 내재해 있다.

2. ‘장안권역 후기’ 시의 경우

이제 장안권역 후기 시 중에서 ‘장안’이 언급된 시들을 살펴 보자. 이 시기는 관직에 있던 시기이므로 궁궐이나 조정, 관직명 등 벼슬과 관계된 것으로써 장안을 대체하는 예가 많다. 이 시기 시에 그려진 장안의 대표적 모습은 ‘성대한 함양 도읍지, 사대부들 날마다 구름같이 몰려드는곳’¹²⁾이다.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보기로 한다.

- | | |
|--|---|
| (5) 長安城頭頭白鳥
夜飛延秋門上呼
又向人家啄大屋
屋底達官走避胡 | 장안성 위 머리 흰 까마귀
한밤 연추문으로 날아와 그 위에서 울고
다시 인가로 날아가 큰 집의 지붕을 쪼아대니
지붕 아래 고관대작들은 오랑캐 피해 달아났다네
..... |
|--|---|

12) “藹藹咸陽都 冠蓋日雲積”(〈送李校書二十六韻〉, 제6권)

哀哉王孫慎勿疎 슬프다, 왕손께서는 삼가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五陵佳氣無時無 오릉의 좋은 기운 사라진 적 없었으니 (<哀王孫>, 제4권)

위는 756년 작 <哀王孫>의 총 28구 중 첫 4구, 끝 2구를 발췌한 것으로 이 시는 안녹산의 난 때 어떤 왕족이 民家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연민을 느껴 지은 것이다. 여기서 장안을 대체하는 것은 “長安城” “延秋門” “五陵”이다. ‘장안성’은 장안의 都城, ‘연추문’은 장안 宮苑의 서쪽에 있는 두 개의 문 중 남쪽에 있는 것, 그리고 ‘오릉’은 장안 북쪽에 있는 다섯 개의 왕릉을 가리키는데 모두 ‘장안’을 중핵으로 하여 형성되는 의미 영역 안에 포괄된다.

첫 4구에서 장안은 ‘장안성과 연추문을 오가며 울다가 오랑캐를 피해 도망간 고관 대작들의 집 지붕을 짚는 머리 흰 까마귀가 사는 곳’으로 그려지는데 여기서 ‘까마귀’는 도망친 고관대작들의 모습을 끌어내기 위한 장치로 작용한다. 끝 2구에서 ‘오릉’으로 대체된 장안은 ‘좋은 기운이 서린 곳’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미처 도망가지 못하고 민가에 숨어 울고 있는 왕손을 보고 그를 위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 표현들은 ‘장안’이라는 주제어에 대한 설명어에 해당한다. 여기서 두보는 관직에 있는 公人の 시선으로 바라본 장안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6) 天門日射黃金榜	궁궐 문 황금 편액에 햇살이 비치고
春殿晴曛赤羽旗	봄의 전각 붉은 깃 장식 깃발에 맑은 기운 피어나네
宮草霏霏承委珮	뜰은 무성하여 늘어뜨린 패옥에 닿고
鑪煙細細駐游絲	향로의 가는 연기는 유사를 붙들어 놓았네
雲近蓬萊常五色	봉래궁 가까이서 구름은 다섯 빛깔을 띠고
雪殘鵲鵲亦多時	지작관 지붕에는 녹다 만 눈이 남아 있네
侍臣緩步歸青瑣	임금 모시는 신하들은 느린 걸음으로 청쇄문을 나서
退食從容出每遲	늦은 시간에 조용히 퇴조한다네

(<宣政殿退朝晚出左掖>, 제6권)

(6)은 758년 左拾遺로 있을 때 지은 <宣政殿退朝晚出左掖>의 전문으로 퇴조하는 관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여기서 제목 속의 ‘선정전’¹³⁾ ‘왼쪽 담장문’(“左掖”) ¹⁴⁾,

13) 大明宮 뒤에 있는 正衙殿을 가리킨다.

본문의 ‘궁궐 문’(“天門”) ‘봉래궁’ ‘청쇄문’¹⁵⁾은 궁궐을 지시하는 구체적 사물들이고 제6구의 ‘지작관’은 장안성 안에 있던 道觀의 이름이며 제7구의 ‘모시는 신하’(“待臣”) 또한 임금을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에 이 모두 ‘장안’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즉 위 시는 장안을 주제어로 하여 여러 개의 설명어가 부가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시의 묘사적 성격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의 시 중에는 이처럼 궁궐을 배경으로 하여 관리의 시선으로 장안을 그린 작품들이 많은데 이를 통해 관직에의 진출이라는 욕망이 잠시나마 충족된 데서 오는 두보의 편안한 내면상태를 읽어낼 수 있다.

(7) 去歲茲晨捧御牀	작년 이 날은 천자의 탐상 받들어 모시려고
五更三點入鵷行	이른 새벽에 관료들의 행렬에 끼어들었지요
欲知趨走傷心地	이리저리 내닫는 가슴아픈 처지 알려주기 바라나니
正想氤氲滿眼香	지금 궁전 관원들의 눈앞에 가득 피어오를 향 연기를
	상상합니다

(<至日奉寄北省舊閣老兩院故人 二首> · 1, 제6권)

위는 두보가 화주로 좌천된 758년 동짓날에 지은 시의 首聯과 頷聯을 발췌한 것이다. 이 시구에서 장안을 대체하는 것은 ‘천자의 탐상’(“御牀”)인데 이 경우는 ‘소유물’(御牀)로써 ‘소유자’(天子)를 가리키는 예이다. 장안이라는 주제어(주제어1)는 ‘御牀’(설명어1)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주제어2’가 되어 신하의 행렬을 가리키는 “鵷行”(설명어2)¹⁶⁾으로 연결된다. 결국 장안은 ‘천자와 신하가 있는 곳’으로 언어화되는 것이다. 두보는 천자를 모시던 장안의 관원 시절을 회상하면서 현재 화주에서의 관직 생활의 참담한 상황을 호소한다. 작년의 ‘그곳’--장안--은 금년의 ‘이곳’--화주--과 대조를 이루는데 같은 관직생활이지만 과거의 그곳과 현재 이곳은 천자라는 존재의

14) 왼쪽(동쪽) 담장의 문을 가리킨다. 두보는 이때 左拾遺 직을 행하고 있었는데 좌승유는 門下省에 속해 있었다. 문하성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원들이 왼쪽 담의 문으로 출입했다. 시에서 ‘좌액’은 결국 문하성을 가리키며 이같은 표현에는 부분으로써 전체를 가리키는 제유법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15) ‘봉래궁’은 大明宮의 다른 이름이고 ‘청쇄’는 원래 한나라 未央宮의 문 이름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문하성의 문을 가리킨다.

16) ‘鵷行’은 원추세 문양의 옷을 입은 벼슬아치들의 행렬이라는 뜻이다.

유무에 따라 큰 차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위 예에서 주목할 점은 北省 즉 門下省과 中書省의 관원들을 수신자로 하여 시를 바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에서 두보는 관원 즉 公人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며 수신자에게 말을 건넨다. 이런 양상은 앞의 (5)에서 ‘왕손’을 수신자로 하는 예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시인이 지니는 여러 모습 중 ‘私的인 나’보다는 ‘公的인 나’의 모습이 강조된다.

- | | |
|-------------|--------------------------------------|
| (8) 苑外江頭坐不歸 | 부용원 밖 강머리에 앉아 돌아갈 줄 모르는데 |
| 水精宮殿轉霏微 | 수정궁은 가랑비에 젖어 점점 흐릿해지네 ¹⁷⁾ |
| | |
| 吏情更覺滄洲遠 | 벼슬아치 신분으로 창주가 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 |
| | 나니 |
| 老大徒傷未拂衣 | 늙어버렸음을 슬퍼하면서도 옷 털고 떠나지 못하네 |
| | (<曲江對酒>, 제6권) |

위는 758년 左拾遺로 있을 때 지은 <曲江對酒>의 首聯과 結聯을 발췌한 것으로 여기서 “苑”은 ‘芙蓉苑’을, “江”은 부용원 북쪽에 있는 ‘曲江’을, 그리고 “水精宮”은 曲江 가에 세워진 궁전을 가리킨다. 이들은 주제어 ‘장안’을 대체하는 장소인 동시에 주제어에 대하여 각각 제1, 제2, 제3 설명어로 작용한다. 제2구의 ‘수정궁’은 제7구의 ‘창주’와 의미상으로 대를 이루는데 전자는 관직에 매어 있는 현실을, 후자는 관직의 굴레에서 벗어난 이상적 세계를 대변한다. 우리는 여기서 두보가 그렇게도 갈망하던 관직이었음에도 다시 창주를 꿈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모순적 태도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미관말직으로서 자신이 원하던 벼슬살이와는 거리가 먼 데서 온 회의감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벼슬살이에의 부적응 때문일 것이다. 인용 시구에서 수정궁으로 대표되는 ‘장안’은 물리적으로는 ‘가랑비에 젖어 모습이 점점 흐릿하게 변해가는 곳’이며, 심리적으로는 ‘창주와 거리가 먼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가랑비 때문에 그 형체가 희미해지는 수정궁의 外觀 또한 벼슬살이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버린 두보의 심리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

17) “霏微”는 가랑비나 가랑눈이 오는 모양을 뜻하는데 가랑비가 오면 물체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여 ‘흐릿해진다’고 번역하였다.

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끝구의 ‘옷 털고 떠나지 못한다’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벼슬살이에 대한 두보의 회의감 이면에 아직 미련이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장안권역 후기는 위관시기인 만큼 장안이라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 많다. 그러므로 이 시들에서 장안은 한 개인의 삶의 거점으로서보다는 관직의 수행처로서 다시 말해 私的이기보다는 公的인 성격을 띠는 장소로 그려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시인의 여러 모습 중 ‘公人’으로서의 나의 목소리로 장안에 대해 언급하는 양상을 띠게 되고 시작품도 수신자를 전제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는 예가 많아진다. 또한 장안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의 공간으로 그려지며 장안을 대체하는 말도 궁궐·기념물·건물·전각, 주변의 산·연못 등 지리상으로 존재하는 어느 한 지점을 가지고 칭하는 예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상과 같은 장안권역 후기 시의 특징은 같은 장안을 무대로 하는 전기의 시에도 공통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안권역 시기의 두보는 ‘벼슬’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입장—전기—또는 벼슬길에 나아간 뒤에는 그 관직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후기—이기 때문에 장안은 ‘官’과 ‘公’의 요소와 강하게 결탁해 있는 장소의 성격을 띤다. 그리고 장안권역 시기의 시에서 부각되는 이 ‘官’과 ‘公’의 요소는 장안에 대한 두보의 심리적 거리를 반영한다. 이로 인해 장안권역 시기의 시들은 대부분 장안을 배경으로 하거나 장안과 연관된 사건·인물·사물·자연환경을 소재로 하면서도 이 시기에 장안에 대한 장소애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IV. 제3권역 시에서의 ‘장안’

759년 7월 48세의 두보는 관직을 버리고 장안¹⁸⁾을 떠나 770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처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장안을 떠난 이후 秦州→同谷→成都→雲安→夔州→江陵·岳陽→潭州 등을 떠돌다 결국 배 위에서 세상을 뜨기까지 두보는 다시 장안에 돌아가지 못했다. 낙양권역이나 장안권역은 두보가 최소 10년 이상을 거주한 곳으

18) 엄밀히 말하면 관직을 버린 것은 華州이다.

로 어느 정도 한 곳에 뿌리를 내린 불박이삶의 양상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안을 떠난 이후 이곳저곳을 떠도는 삶이 이어지면서 성도에서 약 5년, 기주에서 약 2년을 제외하면 한 달 혹은 수 개월 정도 머무르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장소애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3권역의 시기에 지어진 시들은 앞의 장안권역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장소애라는 관점에서 제3권역 시기의 시를 조명할 때 큰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장안을 대체 혹은 지시하는 용어들이다. 장안권역의 시기에 장안은 인접관계에 있는 구체적 장소나 건물, 자연경관, 명소 등으로써 지시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는데 이 시기에 이르면 이런 객관적 지명 대신 故鄉, 故園, 故國, 古丘¹⁹⁾와 같이 정서 개입이 이루어진 용어로 지칭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칭어의 사용은 夔州 이주 이후에 급증하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제3권역 시기를 기주 거주를 전후하여 각각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1. ‘제3권역 전기’ 시의 경우

759년 장안권역에 속하는 華州를 떠나 766년 기주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기는 두보의 떠돌이 생활을 통틀어 가장 이동이 빈번했던 때로 759년 한 해에만 화주·진주·동곡·성도로 옮겨 다니며 살았으며 동곡에서는 겨우 한 달간 머무르기도 했다. 장안권역 이후 전기 시에서 이같은 떠돌이 삶의 처지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진주~동곡간의 여정을 담은 ‘乾元二年自秦州赴同谷縣紀行 12首’와 한 달 동안의 동곡살이를 담은 ‘乾元中寓居同谷縣作歌 七首’, 그리고 동곡~성도간의 여정을 담은 ‘乾元二年十二月一日自隴右赴成都紀行 12首’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낙양’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낙양을 향한 思鄉歌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낙양에 대한 장소애가 정착된 시기로 볼 수 있다.²⁰⁾

19) 시텍스트에 나오는 중원, 고향, 고국, 고원 등은 그 지시대상이 낙양인 경우도 있고 장안인 경우도 있는데 이 중 어느 한 쪽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둘 다를 가리키는지를 판별하는 데는 두보의 연보, 각종 두보시 주석서, 시의 앞뒤 맥락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된다.

20) 낙양에 대한 장소애의 형성·정착에 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장안의 경우 그 곳을 떠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떠난 곳에 대한 그리움이나 回歸 의식이 전면에서 부각되기에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그러한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 | | |
|-------------------------|--|
| (9) 似聞胡騎走
失喜問京華 | 오랑캐 기병 달아났다는 소식 들은 것같아
실성한 듯 기뻐하며 서울 일 물어보네 (<遠遊>, 제11권) |
| (10) 憶昔先皇巡朔方
千乘萬騎入咸陽 | 옛일을 생각하니 선황께서 북방을 순행하시고
천승만기로 함양에 들어오셨네 (<憶昔二首> · 1, 제13권) |
| (11) 西京疲百戰
北關任羣凶 | 장안은 수많은 싸움에 피폐해 있고
북쪽 대궐은 흉악한 무리에게 넘어갔네
(<傷春五首> · 1, 제13권) |

위의 예들을 보면 장안이 (9)에서는 “京華”로, (10)에서는 “咸陽”²¹⁾으로, (11)에서는 “西京”으로 지시되면서 각각 ‘오랑캐들이 물러간 곳’ ‘천자의 근거지’ ‘전란으로 피폐해 있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 예들에서 장안은 천자가 정사를 행하는 公的인 장소로서 부각되어 있다. 그리고 두보도 자신의 여러 모습 중 전직 관리라고 하는 ‘公人’의 목소리로 장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을 본다. 이 중 (9)를 TR의 관계로 나타내 보면 ‘장안(주제어1)—경화(설명어1=주제어2)—오랑캐들이 물러간 곳(설명어2)’의 양상이 된다. (9)~(11)의 예들에서 드러나듯 시 속의 ‘장안’은 현재 마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 회상 속의 공간 혹은 풍문으로 소식을 전해 듣는 상상 속의 공간이다. 여기서 ‘경화’나 ‘함양’ ‘서경’은 장안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한 개인의 사적인 경험이나 감정에 토대를 둔 말이 아닌, 장안에 대한 공식적·보편적인 호칭들이다.

이 시기 장안을 언급한 시들을 보면 위와 같은 양상이 지배적이지만 장안을 떠나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지어진 시들에서는 아래의 예처럼 ‘故國’이나 ‘故鄉’으로 장안을 지칭하는 예가 간혹 발견된다.

21) 함양은 秦의 도읍지이지만 여기서는 장안을 가리킨다.

- | | |
|---------------------------------------|---|
| (12) 故國流清澗
如今花正多 | 고향에는 맑은 위수 흘러
지금쯤이면 꽃이 많이 피어있을 텐데 (<泛江>, 제13권) |
| (13) 數有關中亂
何曾劍外清
故鄉歸不得
地入亞夫營 | 관중에 전란이 빈번하거늘
어찌 일찍이 劍閣 밖이 맑을 수 있었겠나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대도
그 곳은 이미 아부의 병영에 들어갔으리
(<春遠>, 제14권) |

(12)는 764년, (13)은 765년에 지어진 것이므로 이 때는 장안을 떠나 5-6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이며 떠나온 곳에 대한 그리움이 서서히 싹트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안에 대한 場所愛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2. ‘제3권역 후기’ 시의 경우

제3권역 후기는 766년 늦봄 夔州에 도착한 이후 시기이다. 이 때는 746년 장안으로의 진출을 위해 낙양권을 떠난지 20년의 시간이 경과하였고, 장안권의 華州를 떠난지도 8·9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낙양’의 기억은 희미해진 대신 ‘장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부각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떠돌이 생활 중에도 기주에서의 2년은 都督 柏茂林의 도움을 받아 다소 생활이 안정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두보는 이 기간 동안 약 361수의 시를 지었다. 이 시기의 시들을 보면 장안에 대해 언급한 작품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 시기 작품들에서 장안은 西京·京都·渭水·樂遊園·終南山·關中·中原·咸陽 등과 같은 공식적인 지명 외에 주체의 주관적·정서적 개입이 이루어진 ‘故園’ ‘故國’ ‘古丘’와 같은 말로 대체되는 예가 급증한다. 이것은 장안이 낙양을 대신하여 그의 마음의 지향점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말해 주는 한 징표가 된다. 766년 기주에 도착하여 얼마 있다 지은 <秋興八首>는 총 8수가 장안을 가리키는 지칭어들을 포함하고 있어 장안을 향한 思鄉歌라 할 만하므로 먼저 이 작품들에 장안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 (14) 叢菊兩開他日淚 국화꽃 떨기 두 차례 피어 훗날의 눈물이 될 테고²²⁾
孤舟一繫故園心 외로운 배에는 한결같이 고향 그리는 마음 묶여 있네
(<추흥8수> · 1, 제17권)

이 시구는 제1수의 頸聯을 발췌한 것인데 ‘국화꽃’과 ‘배’라는 소재를 통해 ‘故園’을 그리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 시 한 수만 떼어놓고 보면 ‘故園’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으나 8수 전편의 상호텍스트적 관련 하에서 살펴보면 ‘장안’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해진다. 제2수에 보이는 ‘京華’, 제3수의 ‘五陵’, 제5수의 ‘蓬萊宮’ ‘南山’, 제6수의 ‘曲江’ ‘花萼樓’ ‘夾城’ ‘芙蓉苑’ ‘秦’, 제7수의 ‘昆明池’ ‘石鯨’, 제8수의 ‘昆吾’ ‘御宿’ ‘紫閣峰’ ‘漢陂’²³⁾가 모두 장안을 가리키는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래와 같이 제4수에서는 ‘장안’이라는 지명이 직접 등장하기도 한다.

- (15) 聞道長安似奕棋 듣자하니 장안은 마치 바둑판같다고 하던데
.....
魚龍寂寞秋江冷 물고기도 용도 적막한 가을 강은 싸늘하기만 한데
故國平居有所思 고향은 평소 내 그리운 곳이라네
(<추흥8수> · 4, 제17권)

이 시구를 TR의 관점에서 제시하면 ‘장안(주제어1)—고향(설명어1=주제어2)—평소 내가 그리워하는 곳(설명어2)’과 같은 양상이 된다. 여기서 ‘故國’은 ‘고향’보다는 정서적 친밀도가 낮지만 거의 고향과 같은 의미의 비중을 지니는 말로 예 (14)의 ‘故園’과 같다. (14)의 ‘故園’이라는 주제어는 ‘외로운 배를 보면 그리운 마음 솟아나는 곳’으로, (15)의 ‘故國’은 ‘평소 내가 그리워하는 곳’으로 표현되어 있어 ‘장안’이라고 하는 지리상의 지점에 ‘그리움’이라고 하는 정서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22) 이 시구에서 “他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크게 ‘지난날’로 보는 관점과 ‘後日’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스즈키 도라오(鈴木虎雄)의 해석을 따라 ‘後日’로 번역한다. 鈴木虎雄 譯註, 앞의 책(3책), 627면.

23) ‘곤오’는 장안의 지명 중 하나이고 ‘어숙’은 시내의 이름이며, ‘자각봉’은 종남산에 속한 봉우리 이름이다. 그리고 ‘미피’는 호수 이름이다.

수 있다.

- (16) 夔府孤城落日斜 기주의 외로운 성에 석양 비스듬히 비칠 때면
每依北斗望京華 언제나 북두성따라 서울 쪽을 바라본다
.....
畫省香爐遠伏枕 상서성의 향로는 병석에 누운 몸과 어긋나고
山樓粉堞隱悲笳 산 속 성루에는 슬픈 갈앉 피리 소리 숨겨져 있네
(<추홍8수> · 2, 제17권)
- (17) 同學少年多不賤 함께 공부했던 젊은이들은 신분이 높아진 사람 많으니
五陵衣馬自輕肥 오릉 근처에서 가벼운 옷을 입고 살찐 말을 타고 있겠지
(<추홍8수> · 3, 제17권)

(16)에서의 “京華” “畫省”²⁴⁾ (17)에서의 “五陵”이 장안을 가리키는 지시어가 되는 데 (16)에서 장안은 ‘석양 비칠 때면 언제나 바라보는 곳’ ‘과거 벼슬을 하던 곳’으로, (17)에서는 ‘동학들이 高官의 위치에 올라 승승장구하는 곳’으로 그려져 있다.

- (18) 一臥滄江驚歲晚 잠시 푸른 강에 누워 세월 저물어감에 놀랐으니
幾回靑瑣點朝班 청새문에서 조회 점호받던 일이 몇 차례였던가?
(<추홍8수> · 5, 제17권)

위는 <추홍8수> 중 제5수의 끝 연에 해당하는데 앞 세 연에서 ‘終南山’으로써 장안의 위치를, ‘蓬萊宮’으로써 장안에 있는 궁궐을, ‘雉尾扇’과 ‘龍鱗’으로써 황제의 치장을 언급하여 장안성의 모습을 묘사²⁵⁾하고 마지막에 궁궐에 대한 제유적 표현인 ‘靑瑣門’²⁶⁾을 내세워 장안에서 벼슬살이하던 시절에 대한 감회를 나타내었다. 즉, 제5수에서의 장안은 두보 자신이 公人으로 살았던 곳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제8구가

24) ‘畫省’은 ‘尙書省’을 가리키는데 진물을 粉과 그림으로 단장했으므로 ‘畫省’으로 불리기도 했다.

25) “蓬萊宮闕對南山 承露金莖霄漢間 西望瑤池降王母 東來紫氣滿函關 雲移雉尾開宮扇 日繞龍鱗識聖顏”

26) 원래 한나라 未央宮의 대문 중 하나였는데 후에는 그냥 ‘궁궐의 대문’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의문형으로 처리됨으로써 그 시절에 대한 아련함과 그리움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다.

(16)~(18)의 예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京華·畫省·五陵·靑瑣와 같이 장안이 ‘官’ ‘公’의 의미와 결합된 장소로 지칭되는 점에서는 장안권역 시기나 제3권역 전기와 동일하지만 그때는 장안이 ‘현재’의 공간이었던 반면 위 세 예에서 장안은 ‘과거’의 공간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보는 과거 장안을 회상하면서 지금 그 곳의 모습을 ‘상상’하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지리상의 한 지점으로서의 장안에 추억·회상과 같은 개인적 정서가 가미되어 장안이 私的인 장소로 변모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해당 작품이 장안에 대한 장소애를 드러낸 텍스트로 인식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6수와 제7수, 제8수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²⁷⁾ 이 경우들도 앞 (16)~(18)에서처럼 장안이 공식적 용어로 지칭되면서도 과거를 회상·추억하는 데서 오는 感傷的 정조가 가미되어 장안의 ‘私的 空間化’가 일어난다.

이처럼 <추흥8수>에서 장안은 (14)와 (15)에서처럼 삶의 터전으로서의 ‘私的인 장소’로 추억되기도 하고, (16)~(18)에서처럼 官職의 수행처로서 혹은 정치가 행해지는 ‘公的인 장소’로 회상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이 시기 장안이 두보의 마음과 시에서 그리움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로써 ‘제3권역’ 전기에서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장안에 대한 場所愛가 후기에 들어 완전히 정착하게 되었다고 보는 단서가 마련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추흥8수> 외의 작품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19)(20)은 朝廷이 있는 ‘公的 장소’로서의 장안, (21)(22)는 개인의 삶의 거점이 되는 ‘私的 장소’로서의 장안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예이다.

(19) 回首周南客
驅馳魏闕心

머리 돌려 바라보는 주남의 나그네
대궐을 그리는 마음이 치닫는다네

(<晴二首>·2, 제15권)

27) 제6수에서는 장안 주변의 ‘曲江’ ‘花萼樓’ ‘夾城’ ‘芙蓉苑’ ‘秦’ 등 지명·명소·명승지·자연경관 등이 설명어로 작용하여 주제어인 장안을 대체하는데 이 시에서 장안은 황제의 기상이 서린 곳, 제왕의 영토였던 곳, 그러나 현재는 변방의 전란이 있는 곳으로 그려진다. 제7수에서 장안은 ‘昆明池’와 ‘石鯨’으로써 지시되면서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곳’으로 그려진다. 제8수에서는 장안이 ‘昆吾’ ‘御宿’ ‘紫閣峰’ ‘漢陂’ 등으로 대체되어 ‘뛰어난 문장으로 천하에 기상을 드날렸던 곳’으로 표현된다.

- (20) 往在西京日 지난날 장안에 있었을 때
 胡來滿彤宮 오랑캐가 들어와서 황궁에 가득하였다

 京都不再火 장안은 다시 불타지 아니하고
 涇渭開愁容 경수와 위수에 근심했던 나그네 얼굴 펴졌으니
 歸號故松柏 돌아가 옛 소나무 잣나무 붙들고 소리내어 울고 싶지만
 老去苦飄蓬 흩날리는 쭉대 신세로 늙어감이 서럽다 (<往在> 제16권)

예 (19) <晴二首> · 2에서 ‘魏闕’은 宮門 위의 樓觀을 가리키는데 보통 ‘궁궐’이나 ‘조정’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이 구절의 경우 임금이 있는 대궐, 정사가 펼쳐지는 조정은 ‘장안’에 대한 환유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20) <往在>에서는 ‘서경’ ‘경도’ ‘경수와 위수’ (“涇渭”) ²⁸⁾라는 말로 장안을 지시하고 있는데 과거의 장안은 오랑캐의 침입을 받은 곳으로, 현재의 장안은 그로 인한 수심이 사라진 곳으로 그려져 있다. 화자는 장안으로 돌아가 소나무와 잣나무를 붙들고 울고 싶다고 함으로써 장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때의 장안은 한때 침략을 받아 불타고 황폐해졌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전란의 근심이 사라진 황궁이 있는 곳, 즉 정치의 무대로서의 장안이다.

장안이 장소애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故園’ ‘故國’ 또는 ‘古丘’라는 말로써 장안을 지칭하며 과거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던 ‘私的인 공간’으로서의 그 곳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작품들이다. 이런 예는 제3권역 후기의 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 (21) 會將白髮倚庭樹 백발의 몸으로 꼭 고향에 돌아가 뜰의 나무에 기대어
 보리니
 故園池臺今是非 고향의 연못과 누대는 옛 모습과 변함이 없으려나?
 (<秋風二首> · 2, 제17권)

 故園松桂發 고향에 소나무와 계수나무 꽃 피었으리니
 萬里共淸輝 만리 밖에서 맑은 달빛 함께하네 (<月圓>, 제17권)

28) 모두 장안 근처를 흐르는 강인데 경수는 물이 탁하고 위수는 맑았다고 한다.

故園當北斗
直想照西秦

북두성 마주한 고향이여
달빛 비치던 장안이 홀연 그림구나

(<月三首> · 1, 제21권)

覽物想故國
十年別荒村

주변을 둘러보니 고향 생각
황폐한 마을 떠난 지 십 년 (<客居>, 제14권)

(21)은 장안이 ‘故園’ ‘故國’ 등으로 지시되는 작품들의 몇 예를 든 것인데 장안은 각각 ‘돌아가 뜰의 나무에 기대어 보고 싶은 곳’ ‘소나무와 계수나무 꽃이 피어 있을 곳’ ‘북두성 마주한 곳’ ‘떠난 지 십 년이 되는 곳’으로 그려진다. 이 중 <月三首> · 1 과 <客居>를 TR의 관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장안 (주제어1) { 故園(제1설명어1=주제어2) - 북두성을 마주한 곳(설명어2)
西秦(제2설명어1=주제어2) - 달빛 비치던 곳(설명어2)

장안 (주제어1) - 주변을 둘러볼 때 생각나는 곳 - 떠난 지 십 년이 되는 곳(설명어2)
(설명어1=주제어2)

(22) 一辭故國十經秋 한 번 고향을 떠난 후 열 번 가을이 지났나니
每見秋瓜憶故丘 매번 가을 외를 볼 때마다 고향이 생각나네
(<解悶十二首> · 3)

先帝貴妃今寂寞
荔枝還復入長安

선제와 양귀비는 이제 다 적막한데
여전히 여지가 또 장안으로 들어가네

(<解悶十二首> · 9, 제18권)

위의 예 (22)를 보면 같은 제목의 시에서 私的인 장소로서 장안 즉 ‘가을 외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곳’을 가리킬 때는 “故國”으로, 조정이나 정치무대로서의 公的인 장소 즉 ‘과거 양귀비에게 바치던 여지를 다시 진상해야 하는 곳’으로서 장안을 가리킬 때는 “長安”으로 그 지시어가 달라진다는 것이 드러난다.

두보의 시에서 장안은 고향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라 할지라도 ‘고향’이라는 말보다는 ‘고원’ ‘고국’ ‘고구’ 등으로 지칭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낙양과 장안 두 장소를 한 편의 시에서 동시에 언급할 때, 그리고 그 중 하나만을 ‘고향’으로 칭해야 한다면 그것은 단연 장안이 아닌 낙양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23) 故鄉門巷荊棘底 고향 마을은 가시나무 아래 묻혀 있고
中原君臣豺虎邊 중원의 군주와 신하는 승냥이와 호랑이 곁에 있네.
(〈晝夢〉, 제18권)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中原’은 장안을, 이와 對를 이루는 ‘故鄉’은 낙양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두보에게 10여 년 간 살았던 장안 역시 고향과 같은 곳이기는 하나 1차적 혹은 원초적 의미의 고향은 역시 낙양인 것이다. 그러기에 장안은 ‘고향’과 거의 동격의 비중을 지니는 ‘고원’ ‘고국’ ‘고구’라는 말로 칭함으로써 兩者를 구별하고 있다고 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제3권역 후기는 두보에게 있어 장안이 낙양을 대신하여 세계의 중심 즉 고향으로 자리잡은 시기로 장안에 대한 장소애가 정착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향’을 두고 낙양과 장안이 대립할 때 그 궁극적 대상은 ‘낙양’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안에 대해서는 ‘고향’보다는 故國, 故園, 古丘 등의 말이 지시어로 더 많이 활용되었다.

V. ‘장안’에 대한 場所愛의 형성과 정착

Ⅲ~Ⅳ장에서는 두보 삶의 주된 무대가 되는 장안을 중심으로 ‘장안권역’과 ‘제3권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에 지어진 시에 장안이 어떻게 언급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 삶의 무대의 변화에 따라 장안에 대한 두보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장안권역 시기를 볼 때 전기의 경우 장안은 관직으로의 진출이라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場으로 그려지고 후기의 장안은 욕망충족에 따른 여유가 드러

나는 한편 관직에의 부적응과 회의로 滄洲를 꿈꾸면서도 관직에의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장안권역 전기든 후기든 장안은 ‘官’과 결탁된 공간으로 두보 또한 ‘公人’으로서의 자신의 목소리를 발하게 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데 이 시기의 시에서 수신자를 전제하여 그에게 시를 보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형식을 취하는 예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때의 장안은 삶의 터전인 동시에 관직의 수행처로서 현재 마주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그리움이나 추억같은 감정이 싹틀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삶의 터전이었던 장안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던 제3권역 시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어떤 장소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장소에 애착을 갖고 깊은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삶의 근거가 되는 그 장소로부터의 뿌리뽑힘을 경험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장소에 대한 애착 즉 場所愛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며 뿌리뽑힘의 상태가 오래 지속될 때 그 곳에 대한 ‘鄉愁’가 싹튼다. 그리하여 ‘향수’란 ‘뿌리뽑힌 곳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뿌리를 내렸던 장소에 대한 애착이나 향수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공간적’으로도 그 곳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희박할수록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장안이 현재의 공간으로 작용했던 ‘장안권역’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장안권역을 떠나 시간이 별로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제3권역’의 전기는 장안에 대한 향수나 장소애가 전면으로 부각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권역 전기라 하더라도 장안을 떠나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764, 5년 무렵 즉 기주 이전 직전부터는 (12) (13)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서서히 장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시가 등장하게 된다. 기주 이주 직전의 2~3년 무렵을 장안에 대한 ‘장소애의 형성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권역 후기에 이르면 떠난 곳으로부터의 시간적 경과 및 공간적 거리감, 회귀가능성의 희박함과 같은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짐과 동시에 떠난 곳에 대한 그리움·향수·추억·회상·안타까움 등의 감정이 수면위로 솟아오르게 된다. 장안권을 떠나 기약없는 떠돌이삶을 계속하던 두보였기에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것의 소중함은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다가왔을 것이고 이와 비례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심, 歸鄉意識은 더 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장안에 대한 ‘장소애의 정착기’로 규정할 수 있다.

제3권역 후기의 시를 보면 장안에 대한 지시어 혹은 대체어로 ‘고국’ ‘고원’ ‘고구’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 있는데 이같은 호칭은 장소를 그곳에 있는 건물이나 기념물, 명소 혹은 그 부근의 산천경계를 가지고 지칭하는 것과 큰 차이를 지닌다. 후자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객관적인 지식 혹은 공식적 정보에 근거한 호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개인의 私的 경험이나 감정이 개입되어 있지 않거나 적게 개입되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를 ‘고향’ 및 이와 동일한 의미범주에 속한 말로써 지칭한다면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고향’은 ‘지금 이 곳’과 공간적·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그래서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서 그리움, 추억, 안정감 등의 정서적 요소를 함축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秋興8수>에서 보듯 ‘고향’이라는 말로 지칭되지 않고 京華·五陵·蓬萊宮·南山·曲江·花萼樓·夾城·芙蓉苑·秦·昆明池·石鯨·昆吾·御宿·紫閣峰·漢陂 등과 같이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 호칭으로 장안이 지칭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장안은 이미 회상과 추억 속의 과거의 공간, 현재는 풍문으로만 소식을 듣는 상상 속의 공간으로 변모했기 때문에 장안의 ‘私的 공간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지리상의 한 지점으로 존재하는 곳에 특별한 감정과 애착이 가미되어 장안에 대한 場所愛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3권역 후기에 장안이 장소애의 대상으로 정착되었다 하더라도 낙양과 장안 두 곳 중 하나를 ‘고향’으로 지칭해야 할 경우 그 대상은 ‘낙양’이며 장안에 대해서는 고향보다는 ‘故國’ ‘故園’ ‘古丘’와 같은 대체어가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설령 장안이 제2의 고향으로서 마음에 자리잡았다 하더라도 두보에게 있어 근원적인 고향은 어디까지나 ‘낙양’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Ⅶ. 나가는 말

‘장소애’란 지리상의 어느 한 지점으로서의 장소에 주관적 정서가 가미된 개념인데 두보에게 있어 장소애의 대상이 되는 곳은 ‘낙양’과 ‘장안’이다. 이 글은 이 중 ‘장안’에 중점을 두고 ‘장소’ 및 ‘장소애’라는 관점에서 두보의 시를 살핀 것이다. 논의를 위해 두보의 삶과 창작의 무대가 된 곳을 낙양권역, 장안권역, 제3권역으로 구분하였

는데(Ⅱ장) 이 중 장안과 무관한 낙양권역은 제외하고 나머지 두 권역에서 지어진 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언어학의 ‘기능적 텍스트 구성법’의 이론을 차용하여 권역별 시에 장안이 어떻게 언어화되었는가를 살핀 다음(Ⅲ~Ⅳ장) 이에 근거하여 장안에 대한 장소애가 형성·정착되는 양상을 살폈다(Ⅴ장). 장안권역 전기 시에서의 장안은 求職 활동의 거점으로, 후기 시에서는 관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그려진다. 전기든 후기든 장안권역 시에서는 장안이 지닌 ‘公的’인 성격이 부각된다. 제3권역 전기 시에서의 장안은 현실의 공간이 아닌 회고와 추억의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장안의 ‘私的 空間化’ 양상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양상은 후기 시에서 더욱 뚜렷한 면모를 보이는데 장안이 ‘故國’ ‘故園’ ‘古丘’ 등으로 지칭되면서 두보에게 있어 ‘故鄉’의 의미로 자리잡게 된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두보의 삶과 시에서 ‘장안’에 대한 장소애가 ‘형성’된 것은 제3권역 전기이고 확고하게 ‘정착’된 것은 제3권역 후기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지면관계상 이 글에서는 ‘장안’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낙양’의 경우는 다른 지면을 기약하기로 한다.

투고일: 2020.10.26

심사일: 2020.11.26

게재확정일: 2020.12.17

참고문헌

- 강민호 외 7인 역해, 『두보 기주시기시 역해』 1·2,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2019
- 김만원 외 6인 역해, 『두보 진주동곡시기시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_____, 『두보 성도시기시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 _____, 『두보 재주낭주시기시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 _____, 『두보 2차성도시기시 역해』, 서울대학교출판부, 2016
- 이영주 외 4인 역해, 『두보 초기시 역해』, 솔, 1999
- 이영주 외 2인 역해, 『(완역) 杜甫律詩』,明文堂, 2005
- 清 仇兆鰲 撰 『杜詩詳註』, 北京: 中華書局, 1979
- 鈴木虎雄 譯註, 『杜甫全詩集』全四冊, 東京:日本圖書センター, 1978
- 전영란, 『杜甫, 忍苦의 詩史』, 태학사, 2000
- 에드워드 펠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 이푸 투안, 『Topophilia』(1974)(『토포필리아: 환경 지각, 태도, 가치의 연구』), 이옥진 역, 에코리브르, 2011; 『Space and Place』(1977)(『공간과 장소』), 정영철 역, 태림문화사, 1995
- František Daneš,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Text",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ed. by František Daneš(The Hague · Paris: Mouton, 1974

Jangan(長安) in Du Fu's Poems and Topophilia

Shin, Eun-kyung

The term topophilia introduced by geographer Yi-Fu Tuan is defined as the affective bond with one's environment or peculiar places. When working with Du Fu's poems, the objects of the topophilia would be Luoyang(洛陽) and Jangan. Among these, this article focusing on Jangan intends to explore how Jangan is expressed and embodied in his poems(ch.Ⅲ~Ⅳ) thereby showing the aspects of how and when the topophilia of Jangan is formed and settled down(ch.Ⅴ). For these purposes, I classified the places which could be the basis of Du Fu's livelihood and composition of poems into three areas: Luoyang area, Jangan area, and the third area. Further for the consideration of ch.Ⅲ~Ⅳ, I employed the terms "theme" and "rheme" of text linguistics.

Jangan in the poems of early Jangan area is described as an arena for seeking employment and in those of late Jangan area as the location of the workplace for performing duties as a government official. Unlike in the poems of Jangan area which the "public" characteristic of Jangan comes to the fore, in those of the third area the "private" characteristic of Jangan is emphasized. Based on the discussions of the ch.Ⅲ~Ⅳ, we become to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topophilia of Jangan begins to "be formed" in the early third area and "takes root" in the late third area.

Key Words : Du Fu, Changan, topophilia, Changan area, third area, theme, rheme